

6190

黃帝內經에 나타난 寒의 概念, 病機 및 病證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李光浩·金聖勳*

I. 緒 論

韓醫學에서는 病因이란 人體內 陰陽平衡을 破壞하는 病因子를 말하는데, 韓醫學에서는 《黃帝內經》以來 內因, 外因, 不內外因 등의 三因論에 의한 病因分類가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六淫은 外因에 屬한다. 六淫이란 風, 寒, 暑, 濕, 燥, 火 등의 六氣가 人體에 有害한 異常氣候가 되는 것으로 韓醫學의 病因論中 主로 外因으로 分類되고 있다. 그중 寒은 氣溫이 下降한 現象으로 冬季를 主管하는 氣¹⁻³⁾인데 氣溫이 比較的 낮은 겨울이나 氣溫이 急降下할 때 人體가 防寒保溫하지 못하면 쉽게 寒邪를 感受하게 되며, 或은 淋雨涉水, 汗出當風 등이 寒邪를 感受하는 重要한 原因이 된다.^{4,5)}

寒邪의 表現은 自然界的 寒冷, 氷冬, 凝結하는 現象을 人體가 寒邪를 感受함으로써 出現하는 一連의 病理反應 및 證候와 比喩하여 說明할 수 있는데⁶⁾ 《東醫病理學》에서는 寒을 陰邪로서 肅殺, 潛藏, 收引, 凝滯하는 性質이 있어 쉽게 陽氣를 損傷시킨다고 認識하고 있다.^{7,8)}

寒字에 關해 東漢·許慎의 《說文解字》에는 “寒者 凍也”라고 寒의 性質을 定義하였으며, 宋鷺氷은 《中醫病因病機學》에서 “寒은 陰邪로써 쉽게 陽氣를 傷하며 凝滯를 잘하고 收引을 하는 性質이 있다”하였고, 韓醫學의 最高理論書인 《黃帝內經》에서는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矣”, “重寒則熱 重熱則寒”, “氣虛者 寒也 氣實者 熱也”, “其寒者 陽氣少 陰氣多”, “陰盛則內寒” 및 “寒傷形 熱傷氣” 등 寒에 關한 內容이 많이 言及되어 있지만 《黃帝內經》 中에 나타난 文句들이 簡

*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病理學教室

潔하면서도 深奧하여, 그 뜻의 올바른 理解를 위하여 醫家들의 多様な 解釋이 있어 왔으며, 現今에도 《黃帝內經》을 바탕으로 한 研究가 活潑히 進行되고 있다.¹⁰⁻¹³⁾

이에 著者は 《黃帝內經》중에 나타난 寒의 概念, 病機, 病症 등에 關係 明確히 整理함으로써 東醫病理學의 理論定立에 기여하고자 《黃帝內經》中에서 寒字가 包含된 文句를 찾고, 이에 關係 註家와 歷代 重要書籍을 통해 寒의 概念, 病機 및 病證 등을 綜合的으로 考察하였던 바 若問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및 考 案

1. 研究目的과 方法

《黃帝內經》의 病因學說은 人間과 天地는 서로 相應한다는 整體觀念下에 陰陽五行, 臟象, 經絡 등의 理論的인 基礎를 이루었고 感受外邪, 情志失調, 飲食失節, 起居失常, 勞逸失度, 跌搏損傷 등의 原因이 記載되어 있으며, 病機學說은 患者體內的 病因作用과 正氣와 邪氣를 重視하여 正氣가 決定的인 作用을 하고 있음을 強調하고 있는데 正氣의 強弱에 따라 發病與否, 疾病의 重輕, 虛實의 性質, 變化轉歸 등이 決定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黃帝內經》이 東醫學 全般에 걸쳐 廣範하게 다루고 있고¹⁴⁾ 後世 病因病機學의 基礎를 이루었지만 《黃帝內經》上에 言及된 文句들은 簡潔하고 深奧하며 主觀的인 表現이 많아 올바른 理解가 쉽지 않다. 따라서 著者は 《黃帝內經》에 言及된 寒의 概念과 發生, 病機 및 病證에 관한 文句를 調査하고 歷代注家들의 見解를 參考하여 寒의 概念과 發生, 病機 및 病證에 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2. 寒의 發生과 性質

1) 寒의 發生

《黃帝內經》에 나타난 寒의 發生과 關係된 文句를 살펴보면 《陰陽應象人論》¹⁵⁾에서 “天有四時五行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天元紀人論》¹⁶⁾에서

“天有五行,御五位,以生寒暑燥濕風”,《根結》¹⁷⁾에서 “天地相感,寒暖相移,陰陽之道”라고 하여 寒이 四時變化와 作用에 의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陰陽應象大論》¹⁸⁾과 《氣交變大論》¹⁹⁾에 “北方生寒”이라고 하였는데 曹培林은²⁰⁾ “北方生寒”에 對하여 “北方은 冬季를 主管하며 陰寒한 氣가 盛하므로 北方生寒한다.”고 하였으며, 程士德은²¹⁾ “北方은 冬을 主하고 陰氣가 凝結하므로 寒을 生한다.”라고 하였다. 《五常政大論》²²⁾에 “西北方,陰也,陰者,其精奉於上,故左寒而右涼”이라고 하여 北方은 陰에 屬하며 北方에 寒이 生한다고 하여 寒과 方位 및 地方이 相關性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內容들로 미루어 보면 寒의 發生은 自然界의 四時變化와 方位 및 地方에 그 根據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寒의 性質

寒의 性質과 關聯된 文句는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寒은 陰邪로 쉽게 人體의 陽氣를 損傷시킨다.

《陰陽應象大論》²³⁾에 “陰盛則寒”,《癰論》²⁴⁾에 “夫寒者,陰氣也” “陰勝則寒”,《痺論》²⁵⁾에 “其寒者,陽氣少,陰氣多” 등이 言及되어 있어 寒이 陰邪임을 알 수 있으며,《陰陽應象大論》²⁶⁾에 “陰勝則陽病”,《調經論》²⁷⁾에 “陽虛則外寒”,《癰論》²⁸⁾에 “陽虛則寒矣” 《陰陽應象大論》²⁹⁾에 “寒則厥”이라고 하여 寒이 人體의 陽氣를 損傷시킴을 示唆하고 있다. “陰勝則陽病”에 對하여 吳崑³⁰⁾은 “水勝則火滅”이라고 하였고, 馬蒔³¹⁾는 “酸苦涌泄之品이 太過한 것이 陰勝인데 陰이 勝하면 人體의 陽分은 陰品이 適合하지 않으므로 陽分이 病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程士德³²⁾은 “馬蒔의 注는 藥食의 陰陽으로 說明한 것이고, 吳崑은 人體의 陰陽을 引用하여 說明한 것으로 陰氣가 偏勝하면 陰氣虧損의 病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宋鷺冰³³⁾은 “陽病은 陽氣가 損傷을 받아 衰微해진 것으로 陽氣가 衰微하게 되면 溫煦氣化作用이 失常하여 寒證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陽虛則外寒, 陰盛則內寒”에 대해 張介賓³⁴⁾은 “寒氣가 外에 있으면 陽道를 阻遏하여 衛氣가 表를 溫하지 못하고 寒氣가 홀로 있어 寒慄이 發生하는데 이를 陽虛則外寒이라고 하며 寒氣가 臟을 傷하거나 寒涼한 飮食을 먹어서 寒이 中焦에 머물러 있으면 陽氣가 去하여 經脈循環이 되지 못하여 中寒이 發生한다.”고 하였으며, “寒則厥”에 대해 程士德³⁵⁾은 “表裏가 모두 虛하여 陰이 外에서 勝하고 陽이 內에서 虛하면 四肢厥冷이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寒氣가 人體의 陽氣를 쉽게 損傷시킬 수 있음을 說明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內容으로 미루어보면 《癰論》³⁶⁾의 “陽虛則寒矣”와 《調經論》³⁷⁾의 “陽虛則外寒” “陰盛則內寒” 및 《刺志論》³⁷⁾의 “氣實者,熱也,氣虛者,寒也” 등과 같은 文句는 人體內의 陽虛, 氣虛 및 陰勝이 寒證을 惹起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② 寒의 性質은 凝滯케 한다.

《五運行大論》³⁹⁾과 《陰陽應象大論》⁴⁰⁾에 “寒傷血”, 《離合眞邪論》⁴¹⁾에 “寒則血凝泣”, 《經絡論》⁴²⁾ “寒多則凝泣”, 《八正神明論》⁴³⁾에 “天寒日陰, 則人血凝泣”이라고 하여 寒이 凝滯한 性質이 있음을 說明하고 있는데 “寒傷血”에 對하여 王冰⁴⁴⁾은 “寒이 血凝하게 하므로 寒이 血을 傷함을 알 수 있다.”고, 張志聰⁴⁵⁾은 “寒이 甚하면 血이 凝泣하므로 寒이 血을 傷함을 알 수 있다.”고 하여 寒의 凝滯한 性質로 血을 傷한다고 하였다. 또한 《陰陽應象大論》⁴⁶⁾의 “寒氣生濁”과, 《舉痛論》⁴⁷⁾의 “寒氣入經而稽遲, 泣而不行, 客於脈外則血少, 客於脈中則氣不通, 故卒然而痛”은 寒의 凝滯特性을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寒氣生濁”에 對하여 馬蒔⁴⁸⁾는 “寒氣는 陰을 主하며 陰은 下陰과 不散을 主하므로 濁氣가 生한다.”, 王琦⁴⁹⁾ 등은 “寒氣는 凝滯하므로 濁陰이 生한다.”고 하여 寒의 凝滯한 性質이 濁氣를 生한다고 하였으며, 《舉痛論》의 文句에 對하여 張志聰⁵⁰⁾은 “經氣는 流轉하여 如環無端하는데 寒氣가 客하면 凝泣하여 不行하게 된다. 脈外를 客하면 脈縮踈하고 血少하며, 脈中을 客하면 脈滿하고 氣不通하므로 卒然而痛한다.”라고, 程士德⁵¹⁾은 “氣血은 서로 依支하면서 行하는데 寒氣가 脈外에 客하면 먼저 氣를 傷하며 血은 이로 因하여 少하게 된다. 脈中에 客하면 먼저 血이 傷하고 氣는 이로 因하여 不通하게 된다.”라고, 高世式⁵²⁾은 “人身의 十二經脈은 血氣出入의 道로 流行함이 끊이지 않는데 萬若 寒氣가 經에 入하여 正氣가 稽遲하면 血은 凝澁하여 不行한다. 氣는 脈外를 흐르고 血은 이를 따르는데 寒氣가 脈外에 客하여 血少한 것이며, 血은 脈中을 흐르고 氣는 이를 따르는데 寒氣가 脈中을 客하면 氣가 不通한 것이다. 寒氣가 經脈에 客하여 氣血의 흐름이 不能하므로 卒然而痛하는 것이다.”라고 注하여 寒의 凝滯한 性質로 因하여 痛症이 發生하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한편 《陰陽應象大論》⁵³⁾과 《五運行大論》⁵⁴⁾에 “寒生水”라고 하였는데 이에 對하여 王冰⁵⁵⁾은 “寒氣가 盛凝하여 變하면 水가 된다.”고, 程士德⁵⁶⁾은 “陰寒의 氣가 盛하면 氣가 凝하여 水가 된다.”고 하여 寒의 凝滯한 性質이 水로 變함을 說明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③ 寒은 收引을 主한다.

‘收引’이란 收縮牽引의 뜻으로⁵⁷⁾ 氣機收斂과 經脈拘急을 惹起시키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는데⁵⁸⁾ 《舉痛論》⁵⁹⁾에서는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矣”라고 하여 寒이 收引을 主하고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張介賓⁶⁰⁾은 “寒이 外를 束하면 玄府가 閉密하여지고 陽氣가 宣達하지 못하므로 가운데서 收斂되어 散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王冰⁶¹⁾은 “腠은 津液이 滲泄하는 곳이요 氣는 衛氣이며 收는 收斂으로 身寒하면 衛氣가 沈하여 皮膚文理와 滲泄하는 곳이 모두 閉密하여 氣가 流行하지 못하고 衛氣가 中에서 收斂되어 發散을 못한 것이다.”라고 하여

收引의 病理을 說明하였고, 馬蒔⁶²⁾는 “身寒하면 腠理가 閉하고 衛氣가 外로 行하지 못하여 臟腑之氣가 內에서 收斂한 것이다.”고 하였으며, 高世拭⁶³⁾은 “三焦의 氣가 閉하여 肌腠에 通會할 수 없어 氣가 不行한 것이다.”고 主張하였으나 程士德⁶⁴⁾은 張介賓의 說과 王冰의 說이 가장 妥當하다고 보았다. 또한 《至眞要大論》⁶⁵⁾에서는 “諸寒收引皆屬于腎”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對하여 王冰⁶⁶⁾은 “收는 斂이며 引는 急이다. 寒은 物을 收縮케 한다.”라고, 張介賓⁶⁷⁾은 “腎은 水에 屬하고 化는 寒이다. 大概 陽氣가 不達하면 營衛가 凝聚하고 形體가 拘攣하는데 모두 收引을 말한 것이다.”라고 注하여 寒의 收引하는 性質로 因하여 惹起된 寒證이 腎에 屬한다고 하였으며, 黃元御⁶⁸⁾는 “膀胱은 寒水가 되는데 腎과 膀胱은 서로 表裏가 되므로 諸寒收引은 腎에 屬한다.”고 하여 連氣的인 膀胱寒水와 腎과의 關聯性을 言及하였다.

3) 寒生於內

《逆調論》⁶⁹⁾에 “人身非衣寒也, 中非有寒氣也, 寒從中生者何也 …… 是人多痺氣也, 陽氣少陰氣多, 故身寒如從水中出”이라고 하여 內寒의 發生을 言及하고 있는데, 이에 對하여 趙佶⁷⁰⁾ 등은 “陽虛하면 外寒을 生하고 陰盛하면 內寒을 生한다. 人身의 陰陽이 偏盛하면 寒熱이 自生하는데 外部의 邪氣에 傷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痺氣라는 것은 氣가 痺하고 血은 運行하지 못하여 陽虛하나 陰은 勝한 것이다. 따라서 血은 凝泣하고 脈은 不通하게 된다.”고 注하여 氣血의 不通暢으로 因하여 內寒이 發生된다고 하였다. 또한 《刺節眞邪》⁷¹⁾에 “寒則眞氣去, 去則虛, 虛則寒”라고 하여 虛症으로 인한 寒의 發生을 說明하고 있다. 《瘧論》⁷²⁾ “寒生於內, 故中外皆寒”에 대해 楊維傑⁷³⁾은 “內寒症은 陽氣가 外에서 虛하거나 陰氣가 內에서 實하여 나타난다.”고 注하였고, 《調經論》⁷⁴⁾의 “陰盛內寒 …… 厥氣上逆, 寒氣積于胸中 …… 中寒”에 對하여 張介賓⁷⁵⁾은 “寒氣가 臟을 傷하거나 寒涼을 먹거나 마시어 寒이 中焦에 머무르면 內寒證인 內傷病이 發生한다.”고 注하였으며, 《至眞要大論》⁷⁶⁾의 “諸寒收引皆屬于腎”에 대해 宋鷺冰⁷⁷⁾은 “陽虛하여 寒이 많은 것은 腎陽과 關係가 있다.”고 하면서 內寒證을 ‘陰寒內盛, 陽虛內寒, 陣寒固冷’ 등으로 分類하면서 ‘中州虛寒’과 ‘命門大衰’로 病因을 要約하였다.

《黃帝內經》에 나타난 寒의 發生과 性質은 前述한 바와 같이 寒은 自然界의 四時變化와 方位 및 地方에 依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寒은 陰邪로 人體의 陽氣를 쉽게 損傷시키므로 寒證의 發生은 陽虛, 氣虛, 陰盛 등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寒은 凝滯케 하므로 血을 凝滯케 하고 水와 濁氣를 生하며 痛症을 誘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寒은 收引케 하므로 氣機의 收斂과

經脈拘急을 誘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內寒은 氣血의 不通暢으로 發生하거나 寒氣가 中焦에 쌓여 發生하거나 陽氣虛衰로 溫煦機能이 減退하고 陰邪이 盛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外에도 寒의 性質과 關聯된 文句로는 《五運行人論》⁷⁸⁾에 “寒以堅之” “風寒左下” “寒勝則地裂” 등이 言及되어 있는데 ‘堅之’라는 것은 寒氣는 堅凝케하는 性質이 있음을 말하며, ‘左下’라는 것은 風寒의 氣는 下部에 作用하는 것을 말하고, 寒氣가 勝하면 地面이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⁷⁹⁾ 《四氣調神大論》⁸⁰⁾에 “冬三月, 此謂閉藏”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寒氣가 作用하는 冬季에는 萬物이 閉藏하는 季節을 말한 것이다.⁸¹⁾ 《邪氣藏府病形》⁸²⁾에 “天寒則裂地凌水” “諸急者多寒” “澁者多血少氣, 微有寒” 등이 言及되어 있는데 ‘天寒則裂地凌水’은 天氣가 寒하면 땅은 갈라지고 흐르는 물은 얼게 된다는 것으로⁸³⁾ 《五運行人論》에서 言及되었던 “寒勝則地裂”과 같은 의미로 解釋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諸急者多寒’이나 ‘澁者多血少氣, 微有寒’은 脈象이 急한 것은 寒邪가 있는 것이고 脈象이 澁한 것은 氣滯血少하며 微有寒하는 것을 말한 것으로⁸⁴⁾ 寒邪로 因하여 나타나는 脈象을 言及한 것으로 보여진다. 《陰陽應相大論》에⁸⁵⁾ “寒暑過度, 生乃不固”가 言及되어 있는데 張志聰⁸⁶⁾은 “寒暑가 過度하면 表裏陰陽이 모두 損傷되므로 生命을 오래 維持할 수 없다.”고 하였고, 王琦⁸⁷⁾ 등도 “寒暑失度는 모두 人體에 影響을 주어 生命力을 오래 維持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寒暑란 風, 寒, 暑, 濕, 燥, 火를 統括하여 言及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寒의 病理機轉

病機란 疾病의 發生과 發展 및 變化의 理致를 말하는데⁸⁸⁾ 《至眞要大論》⁸⁹⁾에 “謹候氣宜 無失病機, 謹守病機 各司其屬”라고 하여 最初로 病機란 用語가 使用되었는데 이에 對하여 王琦⁹⁰⁾ 등은 “病理理論을 잘 遵守하되 五臟六氣의 病機歸屬도 잘 分析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張介賓⁹¹⁾은 “機者, 要也, 變也, 病變所由出也”라고 하여 病機를 人體內外의 病因이 作用하여 나타나는 病變機轉이라고 하였다. 病機에 對하여 《黃帝內經》에서는 《刺法論》⁹²⁾에서 “正氣存內, 邪不可干”, 《評熱病論》⁹³⁾에 “邪之所湊, 其氣必虛”라고 하여 正氣와 邪氣에 대한 機能을 說明하고 있으며, 《至眞要大論》⁹⁴⁾에서는 19條의 病機가 나타나 있다.

寒의 病機에 對하여 살펴보면 《陰陽應象大論》에 “寒極生熱”, “重寒則熱”이 《水熱穴論》⁹⁵⁾에 “寒盛則生熱也”가 言及되어 있어 寒이 盛하면 熱이 發生함을 示唆하고 있는데 “寒極生熱”에 對하여 張介賓⁹⁶⁾은 “陰은 寒하고 陽은 熱한데 寒

極生熱이란 陰이 變하여 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일 人體가 寒에 傷하면 熱病이 되는데 寒이 熱로 變한 것이다. 따라서 陰陽의 理致는 極하면 반드시 變한다.’고 하여 陰陽의 轉變過程으로 說明하였으며, 張珍玉⁹⁷⁾ 등은 “寒이 人體를 侵入하면 陽氣를 損傷시키고 氣血을 閉阻하면 陽氣를 不運케 하는데 寒이 日久하여 鬱하면 陽을 따라서 熱로 化하게 된다.”고 하여 寒이 鬱하면 熱로 化한다고 하였다. “重寒則熱”에 對하여 張志聰⁹⁸⁾은 “苦는 火로 化하고 酸은 木으로 化하는데 酸苦之味를 久服하면 도리어 木火의 熱로 化한다.”라고 하여 藥食의 氣味로 說明하였으며, 吳崑⁹⁹⁾은 “陰이 極하면 陽을 生한다.”라고, 張介賓¹⁰⁰⁾은 “物極하면 生變하는데 이는 앞 文句의 寒極生熱의 뜻으로 大概 陰陽之氣는 水極하면 沍寫火와 같고 火極하면 沍寫 水와 같으며 陽盛하면 隔陰하고 陰盛하면 隔陽하므로 眞寒假熱하고 眞熱假寒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程士德¹⁰¹⁾은 “物極生變이란 質變뿐만 아니라 物變까지도 말한 것으로 張介賓이 眞寒假熱, 眞熱假寒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陰陽應傷大論》¹⁰²⁾에 “寒傷血”, “寒傷形”, “寒勝則浮”라 하여 寒은 形體와 血分을 傷하고 寒이 勝하면 浮腫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寒傷血”에 對하여는 前述한 바 있다. “寒傷形”에 對하여 王冰¹⁰³⁾은 “寒하면 衛氣가 不利하므로 形을 傷하고 形이 傷하면 寒이 皮腠를 薄하므로 腫이 發生한다.”고, 李中梓¹⁰⁴⁾은 “形傷하면 稽留하고 不化하여 腫이 發生한다.”고 注하여 “寒傷形”을 後文의 “寒勝則浮”와 關聯지어 說明하고 있으며, 張志聰¹⁰⁵⁾은 “陰은 形을 成하는데 寒하면 陰이 甚하므로 形을 傷한다.”고 하였다. “寒勝則浮”에 對하여 張介賓¹⁰⁶⁾은 “寒勝者는 陽氣不行하므로 脹滿虛浮의 病이 된다.”고 하여 形體의 脹滿浮腫이 發生함을 言及한 反面, 張志聰¹⁰⁷⁾은 “寒氣는 陽을 傷하므로 神氣가 浮하게 된다.”고 하여 神氣가 浮하다고 注하였다.

《熱論》¹⁰⁸⁾에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 腰脊強. 二日陽明受之 ……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三日少陽受之 …… 故胸脇痛而耳聾. 四日太陰受之 …… 故腹滿而乾. 五日少陰受之 …… 故口燥舌乾而渴. 六日厥陰受之 …… 故煩滿而囊縮.”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의 病症을 三陰三陽으로 區分하고서 傳經되는 病機를 說明한 것으로 보여진다.

《痺論》¹⁰⁹⁾에 “寒氣勝者, 痛鼻”와 “痛者, 寒氣多也, 有寒故痛也”, 《皮部論》¹¹⁰⁾에 “寒多則筋攣骨痛”, 《周痺》¹¹¹⁾에 “風寒濕氣, 客於外, 分肉之間, 迫切而爲沫, 沫得寒則聚, 聚則排分裂也, 分列則痛”, 《舉痛論》¹¹²⁾에 “寒氣入經而稽遲, 泣而不行, 客於脈外則血少, 客於脈中則不痛, 故卒然而痛” 등이 言及되어 寒에 依하여 痛症

이 發生되는 病機를 詳述하였는데 寒으로 因하여 痛痺가 發生되는 機轉에 對하여 張志聰¹¹³⁾은 “寒은 陰邪이며 痛이란 陰이다. 따라서 寒氣가 勝하면 痛痺가 된다.”고, 張介賓¹¹⁴⁾은 “陰寒之氣가 肌肉筋骨之間을 客하면 凝結不散하며 陽氣가 不行하므로 痛한다.”고, 黃元御¹¹⁵⁾는 “寒의 性質은 凝滯하므로 寒氣가 勝하면 痛痺가 된다.”고, 王琦¹¹⁶⁾ 등은 “寒은 收引케 하고 血氣가 寒을 得하면 凝하여 不痛하므로 痛痺한다.”고, 程士德¹¹⁷⁾은 “氣血은 서로 依支하면서 行하는데 寒氣가 脈外를 侵犯하면 먼저 氣가 傷하고 血도 역시 이로 因하여 血少하여지며, 脈中을 侵犯하면 먼저 血을 傷하고 氣도 역시 이로 因하여 不痛해진다.”라고 하여 寒의 凝滯한 性質로 因하여 疼痛이 發生하는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

《調經論》¹¹⁸⁾에 “寒濕之中人也, 皮膚不收, 肌肉堅緊, 榮血泣, 衛氣去, 故曰虛”, 《舉痛論》¹¹⁹⁾에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矣”라고 하여 寒邪가 血分만이 아니라 氣分에도 影響을 끼치는 것에 對하여 言及하였는데 《調經論》의 文句에 對하여 馬蒔¹²⁰⁾는 “寒濕이 人體에 侵入하면 營血이 泣하고 衛氣가 散寒다.”고, 張志聰¹²¹⁾은 “表陽의 氣는 皮膚를 主하는데 寒濕한 陰邪가 人體의 陽氣를 傷하면 營血이 泣하여 不行하고 衛氣가 皮膚에서 去한다.”고, 王琦¹²²⁾ 등은 “寒濕이 人體을 侵襲하면 營血의 流行이 不利하고 衛氣가 耗損한다.”고 注하여 寒濕과 같은 陰寒한 邪氣가 人體를 侵入하면 營血뿐만 아니라 衛氣에도 影響을 미친다고 하였다.

《周痺》¹²³⁾에 “風寒濕氣, 客於外, 分肉之間, 迫切而爲沫, 沫得寒則聚, 聚則排分裂也, 分列則痛”, 《玉機眞藏論》¹²⁴⁾에 “今風寒客于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이라고 하여 疼痛을 誘發하는 寒邪의 侵入은 皮膚로부터 始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百病始生》¹²⁵⁾에서 이를 더욱 詳述하여 皮膚 → 腠理 → 孫脈 → 絡脈 → 經脈 → 輸脈 → 伏衝之脈 → 腸胃 → 腸胃之膜原 → 脈의 順으로 傳變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咳論》¹²⁶⁾에 “其寒飲食入胃 …… 則肺寒”, 《調經論》¹²⁷⁾에 “因寒飲食, 寒氣薰滿, 則血泣氣去, 故曰虛矣”, 《邪氣臟腑病形》¹²⁸⁾에 “形寒寒飲則傷肺”라고 하여 寒冷한 飲食으로 因하여 虛證이 發生되는 機轉과 寒邪가 臟腑에 直接入하는 經路를 說明하였으며 《氣厥論》¹²⁹⁾에서는 “腎移寒於脾, 癰腫少氣, 脾移寒於肝, 癰腫筋攣, 肝移寒於心, 狂隔中, 心移寒於肺, 肺消…… 肺移寒於腎, 爲痛水”라고 하여 臟腑의 寒邪가 轉變되는 過程을 說明하면서 그 病症을 述하였다.

《至眞要大論》¹³⁰⁾에서 “諸寒收引, 皆屬於腎”, “諸病水液, 澄澈清冷, 皆屬於寒”이라 하였는데 前者의 文句는 앞에서 言及한 바 있다. 後者의 文句에 對하여 張介賓¹³¹⁾은 “水液이라는 것은 上下에서 出하는 모든 것으로 水는 體는 清하고 氣는 寒하니 或吐或利하여 水穀이 不化하고 澄澈清冷한 것은 모두 寒水의 化를 얻

은 것이다.”라고, 黃元御¹³²⁾는 “모든 二便水液의 病이 澄澈清冷한 것은 모두 太陽寒水의 證이다.”라고 注하였으며, 鄭鐵濤¹³³⁾는 이를 寒은 陰邪로 陽氣를 쉽게 損傷시키는 性質이 있다는 寒의 性質과 關聯하여 “陽氣가 損傷을 받으면 正常的인 溫煦氣化作用을 하지 못하여 氣能이 減退하므로 寒證이 나타난다. 萬若 寒邪가 脾胃를 犯하면 脾陽이 損傷을 받아 嘔吐腹瀉 등이 나타나고 脾腎陽虛하면 溫運無力하여 下利清穀, 小便清長 등이 나타난다. 《內經》에서는 이에 對하여 ‘上下竅에서 出하는 涕, 痰, 嘔吐物 便溺 등의 水液이 清澈寒冷하면 모두 寒에 屬한다.’고 하였다.”라고 注하였다.

以上에 나타난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黃帝內經》에 나타난 寒의 病機는 다음과 같다. 寒은 熱을 生한다고 하여 寒이 極하여 熱로 轉變되는 陰陽轉變過程이나 寒이 日久하여 化熱하므로 熱證이 나타나는 것으로 言及되었고, 寒은 形體와 血을 傷하고 寒이 勝하면 浮腫이 發生된다고 하였다. 寒의 凝滯케 하는 性質로 因하여 痛症이 發生함을 說明하였으며 寒의 收引하는 性質로 因하여 惹起되는 病症이 腎에 屬한다고 하여 寒과 腎의 關聯性을 言及하였다. 또한 寒은 營血뿐만 아니라 衛氣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外部의 寒邪가 人體를 侵犯하여 皮膚 → 腠理 → 孫脈 → 絡脈 → 經脈 → 輸脈 → 伏衝之脈 → 腸胃 → 腸胃之膜原 → 筋脈의 順으로 轉變되는 過程을 說明하였고, 寒의 感受로 因한 傷寒의 病症을 三陰三陽으로 區分하고 轉變되는 過程을 밝히고 있다. 寒冷한 飲食으로 因하여 虛證이 發生되는 機轉과 寒邪가 直接 臟腑에 入하는 經路를 說明하고 있으며 臟腑의 寒邪가 轉變되는 過程을 說明하였고, 上下竅에서 出하는 涕, 痰, 嘔吐物, 便尿 등의 水液이 清澈寒冷하면 모두 寒에 屬한다고 하였다.

4. 寒으로 因한 病症

《黃帝內經》에 나타난 寒으로 因한 病症은 매우 多樣하여 身體全般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特徵的인 病症만을 言及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다음과 같이 몇가지 側面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寒慄과 濡瀉

《調經論》¹³⁴⁾에 “陽氣受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 令寒氣在外則上焦不痛, 上焦不通則寒觸獨猶於外, 故寒慄”, 《口問》¹³⁵⁾에 “寒氣客於皮膚, 陰氣盛, 陽氣虛 故爲振寒寒栗”, 《至真要大論》¹³⁶⁾에 “寒入下焦 傳爲濡瀉”라고 하여 寒氣가 上焦의 皮膚에 入하면 寒慄이 發生하고 下焦에 入하면 濡瀉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寒

標'의發生에對하여 張介賓¹³⁷⁾은 “寒氣가 外에 있어 陽道가 阻遏하므로 上焦가 不通하고, 衛氣가 表를 溫하지 못하며 寒氣가 毒溜하여 寒慄이 되는데 이는 陽虛해서 外寒한 것이다”라고 注하였으며, 黃元御¹³⁸⁾나 王琦¹³⁹⁾ 등은 上焦의 陽氣가 不通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濡瀉'의 發生에對하여 張介賓¹⁴⁰⁾은 “寒이 下焦에 入하면 命門의 陽이 衰하므로 大便溜瀉가 된다.”라고, 張志聰¹⁴¹⁾은 “寒入下焦라는 것은 太陽은 標는 陽이며 本은 寒이니 陽熱은 上行하며 陰寒은 下行하는 것이다.”라고, 王琦¹⁴²⁾ 등은 “寒水의 氣가 下焦에 瘀滯하면 濡泄로 變한다.”라고 注하였다.

2) 痛症

寒과 痛症의 發生과의 關係는 앞에서 述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痺論》¹⁴³⁾의 “寒氣勝者, 痛痺, 痛者, 寒氣多也, 有寒故痛也”에 對해 楊維傑¹⁴⁴⁾은 “過勝한 陰寒의 邪氣가 다시 人體의 陽虛를 마주치면 陽寒이 相逢하여 氣血凝滯하여 不痛하면 痛症을 發生시킨다.”고 하였으며 特히 《舉痛論》¹⁴⁵⁾에서는 寒氣와 痛症과의 關係에 對하여 詳細히 說明하였는데 寒氣가 經脈에 入하여 經脈의 稽遲와 凝泣을 招來하여, 積을 形成하여, 脈外에 侵入하여 脈寒하여, 脈中을 侵入하여 炁氣와 싸워 脈滿하여, 寒氣가 稽留하고 炁氣가 이를 쫓아 上行하여 脈充大하고 血氣亂하여, 寒氣의 侵入으로 血이 散하지 못하여 小絡이 急引하여, 寒氣의 侵入으로 脈이 澁하여지고 脈澁하여 血虛하여, 血澁 등으로 因하여 痛症이 發生되는 것으로 比較的 字細히 說明되었다. 葉桂¹⁴⁶⁾도 張介賓에 準하여 舉痛論을 引用하면서 “무릇 寒에 依한 痛症은 十中七八이나 熱에 依한 痛症은 十中一이다.”라 하였으며, 秦伯未¹⁴⁷⁾는 “舉痛論 15條의 內容은 네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痛症은 氣血과 密接하니 氣不通, 氣上逆, 血滿, 血虛 및 血氣亂이고, 둘째, 寒病因의 痛症이 12례이나 熱證은 1례이고 寒熱狹雜은 2례이며, 셋째, 痛症은 臟附經絡과 關係되니 五臟, 臟胃沖脈, 背俞之脈 等이고, 넷째, 痛症의 性質과 다른 兼證은 猝痛目止, 痛甚不休, 按之痛止, 按之無益, 痛不可按 및 相引而痛 等이다.”라고 하였으며, 成肇智¹⁴⁸⁾는 內經의 痛症病理를 經絡氣機不痛, 筋脈急收引 및 局部組織受壓 등의 3種으로 認識하였다.

3) 傷寒과 熱性傳染病

《黃帝內經》에 傷寒과 關聯된 文句는 《熱論》¹⁴⁹⁾에서 詳細히 說明되어 있는데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라고 하여 모든 熱病을 傷寒의 類에 包含시키고 이를 三陰三陽으로 나누어 太陽 → 陽明 → 少陽 → 太陰 → 少陰 → 厥陰으로 轉變되는 過程과 그 病證을 言及하고 있다. 張佶¹⁵⁰⁾ 등은 《水熱血論》의 “人傷

於寒而傳爲熱何也 …… 寒盛則生熱也”를 引用하면서 “《素問·熱論》¹⁵¹⁾의 六經病證은 모두 寒에 傷하여 發病한 것으로 그 六經症狀는 實證과 熱證이 爲主이다. 《傷寒論》의 三陰證은 모두 虛寒證이 爲主이니 《內經》과의 着異點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理論의 淵源은 《內經》에 根本을 두고 있으며 《內經》의 基礎上에서 發殿시켜 나간 것이다.”라고 하여 《黃帝內經》의 六經病證과 《傷寒論》의 六經病證의 差異를 言及하였다. 《生氣通天論》¹⁵²⁾과 《陰陽應象大論》¹⁵³⁾에 “冬傷於寒, 春必溫病”이라 하여 癩病이 寒에 의하여 發生되고 있음을 言及하였는데 癩病이란 季節性 流行性的 特徵이 있는 傳染性熱病과 流行性熱病을 包括하는 것으로¹⁵⁴⁾ 이에 對하여 張志聰¹⁵⁵⁾은 “冬季에 寒에 傷하였는데 邪氣가 바로 發하지 않고 寒氣가 伏藏하였다가 春에 陽氣가 外出할 때 邪氣가 길을 窺아가서 熱로 化하므로 癩病을 發한다.”고 注하였다. 《癩論》¹⁵⁶⁾에 “此先傷於風, 後傷於寒, 故先熱而後寒也, 亦以始作, 名曰溫癩” “先傷於寒而後熱也, 病以時作, 名曰寒癩”이라고 하여 風과 더불어 寒이 癩을 誘發한다고 하였는데 癩이란 現代醫學에서의 癩疾로 寒戰狀熱, 休作有時하는 特徵이 있다.¹⁵⁷⁾ 이와 같은 內容으로 부터 살펴보면 寒은 傷寒이나 熱性傳染病 및 癩과 같은 熱을 主症狀으로 하는 疾患을 誘發하는 因子임을 살펴볼 수 있다.

4) 厥

《陰陽應象大論》¹⁵⁸⁾에 “寒則厥”, 《厥論》¹⁵⁹⁾에 “陽氣衰於下則寒厥”이라 하여 寒氣로 因하여 厥症이 發生함을 言及하고 있는데 “寒則厥”에 對하여 張志聰¹⁶⁰⁾은 “四肢는 諸陽의 本인데 表裏가 모두 寒하므로 四肢가 厥冷한다.”고, 程士德¹⁶¹⁾은 “陰이 外에서 勝하고 陽이 內에서 虛하여 內外가 모두 寒하므로 四肢가 厥冷한다.”고 注하여 陽虛陰盛으로 表裏가 俱虛하여 厥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5) 癰腫

《脈要精微論》¹⁶²⁾에 “諸癰腫筋骨痛, 此皆安生 …… 此寒氣之腫, 八風之變也”, 《癰疽》¹⁶³⁾에 “寒邪客於經絡之中, 則血泣, 血泣則不通, 不通則衛氣歸之, 不得復反, 故癰腫”이라고 하여 寒이 癰腫을 發生시키는 主要原因임을 言及하였는데 癰腫의 發生에 關하여 馬蒔¹⁶⁴⁾는 《脈要精微論》의 文句에 對하여 “《陰陽應象大論》에 寒傷形, 形傷腫이라 하였으니 癰腫이라는 것은 寒氣가 變한 것이다.”라고, 張志聰¹⁶⁵⁾은 《癰疽》의 文句에 對하여 “寒邪가 經絡之中을 侵入하면 血泣하고 血泣하면 不通하며 不通하면 衛氣가 歸還한다. 大概 營氣는 脈中을 行하고 衛氣는 脈外를 行하는데 서로 逆順하면 行한게 된다. 榮血이 留泣하여 不行하면 衛氣도 역시

還轉하므로 癰腫이 發生한다.”라고 注하여 癰腫의 發生이 寒氣와 關聯이 있음을 說明하였다.

6) 痺證

《黃帝內經》에서는 寒氣가 痺證의 發生과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言及하고 있는데 《痺論》¹⁶⁶⁾에 “風寒濕三氣雜至合而爲痺也” “寒氣勝者爲痛痺” 《長刺節論》¹⁶⁷⁾에 “病在肌膚，肌膚盡痛，名曰肌痺，傷於寒濕” 《四時氣》¹⁶⁸⁾에 “着痺不去，久寒不巳” 《陰陽二十五人》¹⁶⁹⁾에 “感於寒濕則善痺”라고 하여 痺證의 發生이 寒氣뿐 아니라 風濕과 같은 邪氣와도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說明하였다. 痺證의 發生에 對하여 張介賓¹⁷⁰⁾은 “陰寒之氣가 肌肉筋骨之間에 客하여 凝結不散하고 陽氣不行하여 痛한다.”고 注하여 寒이 痺證을 誘發하는 因子가 되며 寒이 痛症을 主하는 性質과 關聯지어 痺證中에서도 痛症을 爲主로 하는 痛痺가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다고 하였다.

7) 嘔吐, 腹痛, 脹滿, 腸鳴, 飧泄, 噦 및 噫 등의 消化器疾患

《異法方宜論》¹⁷¹⁾에 “臧寒生滿病”이, 《舉痛論》¹⁷²⁾에 “寒氣客於腸胃, 厥逆上出, 故痛而嘔也” “寒氣客於小腸, 小腸不得成聚, 故後泄復痛矣”가, 《師傳》¹⁷³⁾에 “胃中寒, 則腹脹, 腸中寒, 則腸鳴飧泄”이, 《至眞要大論》¹⁷⁴⁾에 “寒入下焦, 傳爲瀉瀉” “寒厥入胃 …… 滿食減” “寒至則堅仆腹滿, 痛急下利之疾生矣”가, 《脹論》¹⁷⁵⁾에 “厥氣在下, 營衛留止, 寒氣逆上, 眞邪相攻, 兩氣相搏, 乃合爲脹也”가, 《百病始生》¹⁷⁶⁾에 “多寒則腸鳴飧泄, 食不化” “有寒則膜滿雷引, 故時切痛”이 《口問》¹⁷⁷⁾에 “寒氣與新穀氣, 俱環入於胃, 新故相亂, 眞邪相攻, 氣竝相逆, 復出於胃, 故爲噦”과 “寒氣客於胃, 厥逆從下上散, 復出於胃, 故爲噦噫”가 言及되어 寒이 腹痛, 嘔逆, 泄瀉, 腹脹滿, 食減, 噦 및 噫 등의 消化器疾患을 誘發한다고 하였다. 이 中 脹滿에 對하여 張介賓¹⁷⁸⁾은 “臧이 寒하면 多滯하므로 脹滿이 된다.”고 注하였으며, 馬蒔¹⁷⁹⁾는 “厥氣가 下에서 逆하면 營衛가 正常的이지 못하여 留하여 不行하며 寒邪는 厥氣를 따라 上行하여 眞氣와 邪氣가 相攻하므로 脹이 된다.”고 注하였고, 張志聰¹⁸⁰⁾은 “下焦의 寒氣로 因하여 衛氣가 逆行하여 脹이 된다.”고 注하여 脹滿은 寒氣가 厥逆하여 發生하거나 臧寒으로 因하여 發生됨을 示唆하였다. 腸鳴과 飧泄에 對하여 郭沔¹⁸¹⁾은 “寒邪가 甚하면 澄澈清冷하고 水穀이 不分하므로 腸鳴, 飧泄, 食不化한다.”고 하였으며, 腹痛과 嘔吐에 對하여 王琦¹⁸²⁾ 등은 “寒氣가 腸胃에 留滯하여 厥氣가 上逆하면 胃가 和降機能을 失하므로 腹痛과 嘔吐가 發生한다.”고 하였고, 張志聰¹⁸³⁾은 “寒氣가 腸胃之間을 客하면 胃로부터 上出하므로 腹痛과 嘔吐가 發生한다.”고 注하였다. ‘噦’에 對하여 馬蒔¹⁸⁴⁾는 “眞氣는 胃氣이며 邪氣

는 寒氣를 말하는데 寒氣가 胃氣와 서로 다투므로 噦이 發生한다.”고 注하였고, ‘噫’에 對하여 張志聰¹⁸⁵⁾은 “寒氣가 胃에 客하여 厥逆의 氣가 心으로 上走하므로 噫가 된다.”고 注하였다. 以上에서 볼 수 있듯이 寒은 脹滿이나 泄瀉, 嘔逆, 腸鳴, 飧泄, 食不化, 噦, 噫 등의 消化器疾患을 誘發하는 要因이 됨을 알 수 있다.

8) 積, 疝, 腸覃 및 石瘕

《百病始生》¹⁸⁶⁾에 “積之始生, 得寒乃生, 厥乃成積也”가, 《長刺節論》¹⁸⁷⁾에 “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 得之寒”이, 《水脹》¹⁸⁸⁾에 “腸覃何如? …… 寒氣客於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營, 因有所繫, 癖而內著, 惡氣乃起, 瘕肉乃生”, “石瘕生於胞中, 寒氣客於子門, 子門閉塞, 氣不得通, 惡血當瀉不瀉”가 言及되어 寒으로 因하여 積, 疝, 腸覃 및 石瘕 등이 發生함을 示唆하고 있는데 積의 發生에 對하여 郭括¹⁸⁹⁾은 “寒은 邪氣를 代表하는 것으로 風寒暑濕燥熱이 모두 積을 生成한다.”고 하였으며, 張吉¹⁹⁰⁾ 등은 “寒邪는 陽氣를 損傷시키는데 津液은 陽이 없으면 化하지 못하므로 腸胃之外의 津液은 留滯하고 日久하면 津凝血結하여 漸次 積聚를 이루게 된다.”고 하여 寒의 凝滯케 하는 性質과 關聯지어 說明하였다. ‘疝’에 對하여 張志聰¹⁹¹⁾은 “이는 厥陰寒疝의 病이다. 肝은 疏泄을 主하는데 肝氣가 逆하므로 不得大小便하고, 寒疝이므로 少腹痛하며 위로 腹部까지 痛한다.”고 하였으며, 張吉¹⁹²⁾ 등은 “寒을 感受하면 寒은 氣收하므로 經脈不行하고 氣滯不通하여 少腹痛, 大小便不利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腸覃의 發生에 對하여 張介賓¹⁹³⁾은 “寒氣와 衛氣가 相搏하면 蓄積不行하여 腸外에 머물러 쌓이므로 癖積이 나타나며 瘕肉이 이루어져서 腸覃이 된다.”고 하였으며, 張吉¹⁹⁴⁾ 등도 “寒氣가 腸外에 客하여 衛氣와 相搏하면 氣血의 流通이 不暢하여 漸次 惡氣를 生하고 惡氣가 大作하면 瘕肉狀의 腫物을 生한다.”고 하여 寒氣와 衛氣의 相搏으로 氣血流通이 되지 않아 腸外에 惡氣가 쌓여 發生하는 것으로 說明하였다. 石瘕의 發生에 對하여 馬蒔¹⁹⁵⁾는 “石瘕는 반드시 胞中에서 生하며 寒氣가 子門을 客하여 子門이 閉塞하고 氣가 外部와 不通하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張吉¹⁹⁶⁾ 등은 “石瘕하는 寒氣가 子宮口에 客하여 子宮口가 閉塞되면 子宮內의 惡血敗露가 不瀉하여 凝聚하여 이루어 진다.”고 하여 寒氣가 子宮을 侵入하여 氣의 流通이 되지않아 發生하는 것으로 認識하였다.

9) 其他

運氣論에서 言及된 寒의 病證運氣論에서 言及된 寒의 病證은 《氣交變大論》¹⁹⁷⁾에 “身熱煩心躁悸, 陰厥上下中寒, 譫妄心痛, …… 甚則腹大脛腫, 喘咳, 寢汗出憎風” “民病胸中痛, 脇支滿, 兩脇痛, 膺背肩胛間及右臂內痛, 鬱冒蒙昧, 心痛暴瘖, 胸

腹大, 脇下與腰背相引而痛, 甚則屈不能身, 臃脾如別”이, 《六元正紀大論》¹⁹⁸⁾에 “寒濕之氣, 持於氣交, 民病寒濕, 發肌肉萎, 足痿不收, 濡瀉血溢” “民病寒, 反中熱, 癰疽注下, 心熱瞀悶” “病暴仆, 振栗譫妄, 少氣噎乾引飲, 及爲心痛癰腫瘡瘍瘡寒之疾, 骨痿血便” “民病, 寒濕腹滿, 身膜憤, 附腫痞逆, 寒厥拘急” “感于寒濕, 則民病身重附腫, 胸腹滿” “感于寒, 則病人關節禁固, 腰椎痛” “寒熱凌犯而爭于中, 民病咳喘, 血溢血泄黧瘖目赤皆瘍, 寒厥入胃, 心痛腰痛, 腹大, 噎乾, 腫上” “寒氣時至, 民乃和, 其病淋, 木暝目赤, 氣鬱於上而熱” “寒氣時至, 民病氣厥心痛, 寒熱更作, 咳喘目赤” “寒熱互至, 民病寒熱, 噎乾, 黃瘰, 黧衄, 飲發” “寒氣時至, 則霧霧翳, 病生皮腠, 內舍於脇, 下連少腹而作寒中” “民病寒客心痛, 大關節不利, 屈伸不便, 善厥逆, 痞堅腹滿”이, 《至真要大論》¹⁹⁹⁾에 “寒淫所勝, 則凝肅慘慄, 民病少腹控辜, 引腰脊上衝心痛, 血見噎痛, 頰腫” “寒淫所勝, 則寒氣反至, 水且冰, 連火炎熱, 雨暴乃晦, 血變于中, 發爲癰瘍, 民病厥心痛, 嘔血血泄黧衄, 善悲時眩仆, 胸腹滿, 手熱時攣掖腫, 心澹澹大動, 胸脇胃腕不安, 面赤目黃, 善噎噎乾, 甚則色衰, 渴而欲飲病本于心” “寒厥入胃, 則內生心痛, 陰中乃瘍, 隱曲不利, 互引陰股, 筋肉拘苛, 血脈凝泣, 結滿色變, 或爲血泄, 皮膚否腫, 腹滿食減” 등이言及되어 있다. ‘身熱煩心躁悸, 陰厥上下中寒, 譫妄心痛’에 대하여 張介賓²⁰⁰⁾은 “心臟이 邪氣를 받은 것이다.”라고注하였고, 張志聰²⁰¹⁾은 “寒氣가 上乘하면 火氣를 迫하여 外炎하므로 身熱하고, 心煩心悸는 水氣가 心으로 上凌한 것이며, 躁는 火氣가 陰氣와 交會하지 못한 것이고, 陰寒의 氣가 甚하므로 厥逆하는 것이며, 上下中寒은 三焦의 火가 衰한 것이요, 心身不寧하므로 譫忘한다.”고注하였다. ‘腹大頸腫, 喘咳, 寢汗出憎風’에 대하여 張志聰²⁰²⁾은 “이는 水淫이 甚하여 自傷한 것으로 水邪가 泛溢하여 土가 制하지 못하므로 腹大頸腫하며, 水氣가 上逆하므로 喘咳하고, 太陽之氣는 水中에서 生하고 膚表를 主하는데 水泛하여 根源이 竭하므로 太陽之氣가 滋生하지 못하여 表陽이 虛하므로 汗出憎風한다.”고하였다. ‘民病胸中痛, 脇支滿, 兩脇痛, 膺背肩胛間及兩臂內通, 鬱冒朦昧, 心痛暴瘡, 胸腹大, 脇下與腰背相引而痛’에 대하여 張介賓²⁰³⁾은 “火가 不足하면 陰邪가 盛하여 心氣를 傷하므로 이러한 病이 發生된다”고하였으며, ‘甚則屈不能伸, 臃脾如別’에 대하여 張志聰²⁰⁴⁾은 “太陽은 諸陽之氣를 主하며 寒水之中에서 生하는데 寒淫이 太甚하면 陽이 虛해진다. 屈不能伸이란 病이 筋에 있는 것으로 太陽은 筋을 主하는데 陽氣가 虛하면 養筋하지 못한다. 太陽之氣가 病이 되면 腰似折, 痺不可以曲, 臃如結, 臃如別하는데 蹠厥이라고 한다.”고注하였다.

‘民病寒濕, 發肌肉萎, 足痿不收, 濡瀉血溢’에 대하여 張介賓²⁰⁵⁾은 “血溢을 火鬱의 病으로 寒濕으로 因한 것이다.”라고하였으며, ‘病暴仆, 振栗譫妄, 少氣噎乾引飲, 及爲心痛癰腫瘡瘍瘡寒之疾, 骨痿血便’에 대하여 張志聰²⁰⁶⁾은 “歲半以後는 少陰

君火가 主氣인데 도리어 寒濕이 相加하므로 振栗譫妄, 噎乾使血 등의 證이 나타나며 이는 모두 外에서는 寒凝하고 內에서는 火鬱한 때문이다.”라고 注하였다. ‘民病, 寒濕腹滿, 身膜憤, 臍腫痞逆, 寒厥拘急’에 對하여 張志聰²⁰⁷⁾은 “民病腹滿諸證은 寒濕之氣를 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寒熱凌犯而爭于中, 民病咳喘, 血溢血泄鼻衄, 目赤瘍, 寒厥入胃, 心痛腰痛, 腹大, 噎乾, 腫上’에 對하여 張志聰²⁰⁸⁾은 “咳喘血溢鼻衄, 目赤瘍, 噎乾腫上은 上部에 熱病이 生한 것이고, 血泄寒厥은 下部에 清病이 生한 것이며 胃心痛腰痛腹大는 寒熱이 中部에서 交爭하는 것이다.”라고 注하였다. ‘其病淋, 目瞑目赤, 氣鬱於上而熱’에 對하여 張志聰²⁰⁹⁾은 “淋目瞑은 寒氣가 病이 된 것이며, 目赤은 君火의 氣이며 氣鬱於上而熱은 寒氣가 上乘한 것이다.”라고 注하였으며, ‘氣厥心痛, 寒熱更作, 咳喘目赤’에 對하여 高世拭²¹⁰⁾은 “氣厥心痛은 寒으로 因한 것이고 寒熱更作, 咳喘目赤은 寒熱이 交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民病寒熱, 噎乾, 黃瘡, 鼻衄, 飲發’에 對하여 張介賓²¹¹⁾은 “濕熱의 病이다.”라고 注하였고, ‘寒客心痛, 腰痛, 大關節不利, 屈伸不便, 善厥逆, 痞堅腹滿’에 對하여 張介賓²¹²⁾은 “이는 모두 寒水의 氣가 病이 된 것으로 火는 水를 畏하니 心痛하고 寒入腎하니 腰痛하며 寒하면 氣血이 凝滯하고 筋脈이 急한 故로 關節不利하고 屈伸不更하며 陰氣가 勝하고 陽氣가 不行하므로 厥逆痞堅滿한다.”고 하였다.

‘小腹控牽, 引腰脊, 上衝心痛, 血見, 噎痛頰腫’에 對하여 吳崑²¹³⁾은 “寒氣入中한 것은 膀胱腎을 말하는데 膀胱은 腹과 連繫되어 있으므로 少腹病하고 腎은 陰丸을 主하니 控牽丸하며 腰는 腎의 府이고 太陽의 脈은 挾脊抵腰中하므로 引腰脊하고 腎脈은 心에 絡하니 上衝心病하며 心은 血을 藏하므로 血見하니 火가 水를 畏하는 象이다. 手太陽之脈은 咽部를 循하고 踝로 上行하니 噎痛頰腫한다.”고 注하였으며, ‘胸腹滿, 手熱時攣腋腫, 汎澹澹大動, 胸脇胃脘不安, 面赤目黃, 善噎噎乾, 甚則色尫, 渴而欲飲, 病本于心’에 對하여 吳崑²¹⁴⁾은 “水가 不升하고 火가 不降하므로 胸腹滿하며 火가 內에서 鬱하므로 手熱하고 寒이 絡에 客하므로 肘攣하며 心脈이 腋下로 出하니 腋腫하고 火는 水를 畏하니 澹澹大動하며 大動하므로 胸脇과 胃脘이 不安하고 心病은 自身의 色을 나타내니 面赤한다. 熱이 內에 있으니 目黃하고 火가 心에 拂하니 善噎하고 心脈은 위로 咽部를 挾하니 噎乾하며 火甚하면 五液이 乾涸하므로 渴而欲飲하니 이는 心이 寒邪를 받아서 된 것이다.”라고 注하였고, ‘筋肉拘苛, 血脈凝泣, 絡滿色變, 或爲血泄, 皮膚否腫, 腹滿食減’에 對하여 張介賓²¹⁵⁾은 “筋肉이 寒을 得하면 痺가 되므로 筋急肉苛하고 血脈이 寒을 得하면 營衛가 凝澁하고 經脈이 不行하므로 絡滿色變하며 血이 經脈에 滯하면 妄行하므로 或血泄이 되고 表寒하여 不行하므로 皮膚가 痞腫하며 裏寒하여 滯하므로 腹滿食減한다.”고 注하였다.

Ⅲ. 結 論

《黃帝內經》에 나타난 寒의 概念, 病機 및 病症에 對하여 考察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寒은 冬季에 閉藏를 主管하는 氣로서 自然界的 四時變化와 方位 및 地方에 根據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寒의 性質에 關해 《痺論》의 “寒者 陽氣少 陰氣多”, 《調經論》의 “陽虛則 外寒 陰盛則內寒” 및 《刺志論》의 “氣實者 熱也 氣虛者 寒也” 등은 寒이 陰邪로서 陽氣虛와 關聯됨을, 《陰陽應象大論》의 “寒傷血, 寒勝則浮, 寒傷形”, 《離合眞邪論》의 “寒則凝泣”, 《經絡論》의 “寒多則凝泣”, 《八正神明論》의 “天寒日陰則人血凝泣” 등은 寒의 凝泣性質을, 《舉痛論》의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와 “諸寒收引皆屬于腎”은 寒의 收引性質을 示唆하고 있다.
3. 《逆調論》의 “寒從中生者何也 …… 陽氣少陰氣多 故身寒如從水中出”, 《刺節眞邪論》의 “寒則眞氣去 …… 虛則寒”, 《瘧論》의 “寒生於內 故中外皆寒”, 《調經論》의 “陰盛內寒 …… 厥氣上逆 …… 中寒” 및 《至眞要大論》의 “諸寒收引皆屬于腎” 등은 모두 內寒에 關한 言及이다.
4. 《舉痛論》에서 寒에 의한 痛症發生 病理에 關해 13條文이 言及되었으며 《痺論》에서 “痛者 寒氣多也”라고 한 內容은 後代醫家들이 寒을 痛症發生의 主要原因으로 認識하는 바탕이 되었다.
5. 寒症을 外部의 寒邪가 侵入하여 發生되는 外寒症과 内部의 陽氣不足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內寒症으로 나눌수 있다.
6. 《至眞要大論》의 “澄澈清冷皆屬于寒”은 “水液混濁皆屬于熱”에 對한 相對條文으로 辨證上 痰, 涕, 淚, 便尿 등 各種 體液 排泄物의 狀態로서 寒熱을 判別하는 根據가 되는 言及이다.
7. 傷寒에 依한 病의 傳變過程은 《素問熱論》을 中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後代 張機의 六經辨證의 根幹이 된 것으로 思慮된다.
8. 寒의 病證은 寒慄, 泄瀉, 痛症, 傷寒, 熱性 傳染病, 厥, 癱腫, 痺證, 嘔吐, 腹痛, 脹滿, 腸鳴, 飧泄, 噎, 噫, 積, 疝, 腸覃 및 石瘕 등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文潸典 外：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p. 27, 35, 36, 1990.
2. 洪元植：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 1~19, 31~39, 44, 55~73, 76~90, 103~107, 116~130, 131~145, 150~155, 161, 177~179, 181~188, 213~218, 248, 261~264, 272, 314~319, 336, 347, 593, 1981.
3. 金玉成：黃帝內經에 보이는 “掉”字에 대한 意味分析, 大邱韓醫科大學 論文集, 第四輯 別冊, p. 2, 1986.
4. 崔昇勳：黃帝內經에서의 瘀血의 認識에 대한 理論的 研究, 東醫病理學會誌, pp. 12~17, 1988.
5. 表天根：黃帝內經에 대한 書志學的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pp. 31~72, 1982.
6. 郭滌：內經講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586~587, 593, 1989.
7. 甄志亞 外：東洋醫學叢書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p. 21, 1990.
8. 高士宗：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 281, 285, 601, 1982.
9. 馬元臺, 張隱庵：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p. 25, 36, 40~49, 129, 232, 253, 272~277, 298, 337, 361, 413~414, 501~505, 560~569, 574, 629, 1981.
10. 上海中醫學院 編：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238~239, 1983.
11. 葉 桂：臨證指南醫案, 商務印書館, p. 616~619, 1976.
12. 宋鷺冰：中醫病因病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87, 88, 300, 1987.
13.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一中社, p. 274, 334, 1991.
14. 吳 崑：內經素問吳注,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 22, 347, 351, 1984.
15. 王琦 外：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p. 29, 33, 190, 207, 279, 321, 453, 1983.
16. 王 冰：黃帝內經素問附靈樞, 文光圖書有限公司,
p. 21, 23, 107, 249, 年度未詳.
17. 劉燕池：中醫學基礎概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 9, 1986.
18. 任應秋：任應秋論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9. 張介賓：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p. 18, 341, 369~370, 374, 376, 444, 463, 539, 559, 847, 850, 897, 919, 942, 963, 1982.
20. 張吉 外：內經病證辨析,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p. 29, 56, 279, 289, 290, 367, 1988.

21. 張珍玉 外：東洋醫學叢書，病因病機學，서울，一中社，p. 1, 18, 51, 1990.
22. 著者未詳；中醫學入門，香港，醫藥衛生出版社，p. 74, 1974.
23. 程士德 外：素問注釋匯粹，北京，人民衛生出版社，p. 75~76, 89, 94, 285, 551, 1982.
24. 程士德 外：內經講義，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 94, 1987.
25. 鄭鐵濤 外：內經要覽，香港，香港宇宙公司出版，p. 95~96, 年度未詳.
26. 趙佶 外：聖濟總錄，北京，人民衛生出版社，p. 507(上), 1982.
27. 曹伯林：內經講析，北京，中醫古籍出版社，p. 18, 1989.
28. 秦伯末：兼壽醫學講稿，香港，上海科學技術出版社，p. 168~170, 1978.
29. 天津中醫學院：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1986.
30.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p. 86(上), 108, 1982.
31. 黃元御：黃氏醫學十一種，素問懸解，北京，人民衛生出版社，p. 133, 225, 349, 1990.
32. 成肇智：《內經》對痛症機理的認識，浙江中醫雜誌，p. 261, 1981.
33. 俞涵英：淺談病機十九條，新中醫，p. 48, 1985:10.